

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: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. Bronx, NY 10463 (718) 796-0267 / 3636	맥 한의원 한의사 : 김 글라라 침,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204 street Bronx (718) 563-1209	브롱소한의원(서호) 한의사 박 다니엘 각종영양제, 한약, 침(체질학) 전문 908:347-1933, 2303 908:233-0138(H)
홍표 홍침대 장수돌침대☆☆☆☆☆ 뉴저지미의원료기 리지필드한아름소풍물내 Tel. (201)945-9944(B) (201) 527-8040(cp)	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(헤레나) (203) 629-0266(O) Fax (203) 629-9073 각종 보험, 투자	그레이스 여성복 남성복 (파도 회집 옆) (718) 461-5545 (917) 572-1800
중앙 장의사 하 봉 호 (718) 353-2424	웨스트체스터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, Rentals Mija(세실리아) Son (914)310-6990 (cell)	뉴욕정비(자동차) 정우진, 브롱스 2801 Webster Ave. (718) 295-3252
통증 중재의학 이인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(718) 224-1600 43-24 220Pl. Bayside, NY 11361	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. 대표 : 김 윤 환(Francisco) 영 희(Julie) 16w 32nd St. #1106 nyc10001 1-212-563-3350 1-800-223-6225	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. W 32 St. Suite 300 맨하탄(212) 947-8382(B) 뉴저지(201) 592-5514(H)
Edward D. Jamis, Jr. 장의사 조용하고 주차, 교통 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뉴욕 최초 여성 공인장례인 (718)224-2390, (888)224-6088	서 부권 합동 법률 사무소 사고, 상해 전문 (718) 461-3131	HOPE AGENCY INC. 희망 보험사 가게, 빌딩, 주택, 자동차 트럭, 벤, 생명, 교육, 은퇴 (718) 961-5000 김 모세
FirstAmerican Land 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계 지 대출까지(주택, 상가 정영오(루가) 사업체) (201)-4619999 (B) (917)232-8890 Cell	김진상 3S 규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◎ 뉴욕, 플러싱 : (718) 460-1802 ◎ 북부 NJ : (201) 840-1123 ◎ 중부 NJ : (732) 548-4848 김 진상 (빈센트)	김 철 공인회계사 Young&Jullan, LLC 150-05 Nothen Blvd 2Fl Flusing, NY (노던150가) (718) 888-1217
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ant 445 Grand Ave PalisadesPark, NJ 07650 Tel. (201)461-4447	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. 3135 Grand Concourse (between 204 & 205 St.) Tel. (718) 563-6997	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-금 8:00 AM-4:30 PM 일 9:00 AM-2:00 PM (718)353-7676(Fax) (718)353-8291 144-19 33rd Ave Flusing, NY 11354
브롱소한의원 주치식물 견내편, Foxd Town 앞, 주치장 완비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. (718) 329-1678	정인편(스테파니)치과 콜럼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(지립병원 앞) (718) 426-4343 베이사이드(대동문)주치(888) (718) 352-8234	리 사 휴대폰 국내무제한, 한국5시간 월 \$40 (세금포함) (718)205-1200 Kim

제1651호

2011,2,27

복 부 뉴 욕

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

Korean R.C. Church of St. John Nam



“내일을 걱정하지 마라” (마태오 6,24-34)

주임 신부 : 남 시몬(해근)

부주임신부 : 이 안드레아(환규)

본당 수녀 : 김 소피아(마리아)

교회 시간표

주일 미사 : 오전 8시, 11시(본미사), 12시 30분(학생미사)

평일 미사 : 매일 오전 9시, 수요일 오후 8시

고백 성사 : 주일 11시 미사 전.후

주일 학교 : 주일 오전 11시

한글 학교 : 주일 오전 10시

예비자교리 : 주일 오전 9시 30분

병자봉성체 : 매월 첫 금요일

유아 영세 : 매월 둘째 토요일(한달전 신청)

3663 White Plains Road Bronx, NY 10467

사무실 : (718) 231-2414

수녀님 : (914) 265-0117

회 장 : (914) 320-3937

Fax : (718) 405-0053



연중 제8주일

ㄹ 입당송

(시편 18(17), 19-20)

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. 내가 주님 마음에 들었기에,
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.

<대영광송>

ㄹ 제1독서

(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.)

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.

(49, 14-15)

¹⁴ 시온은 “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.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.”
하고 말하였지. ¹⁵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? 제 몸에서
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?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
하더라도,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 ◎

ㄹ 화답송 시편 62(61), 2-3, 6-7, 8-9 (◎ 6ㄴ)

◎ 내 영혼아, 하느님만을 고요히 기다려라.

-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리니, 내 영혼 그분만을
고요히 기다리네. 그분만이 내 바위, 내 구원, 내 성채.
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. ◎
-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내 희망이 오리니, 내 영혼아, 그분만을
고요히 기다려라. 그분만이 내 바위, 내 구원, 내 성채. 나는
흔들리지 않으리라. ◎
- 내 구원, 내 영광 하느님께 있고, 내 든든한 바위, 내 피신처
하느님 안에 있네. 백성아,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여라.
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. ◎

ㄹ 제2독서 (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.)

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(4, 1-5)

형제 여러분, ¹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, 하느님의
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. ² 무릇 관리인에게

요구 되는 바는,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.

³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,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
받든지,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나도 나 자신을
심판하지 않습니다. ⁴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.

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. 나를 심판
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. ⁵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
심판하지 마십시오.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,
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. 그때에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
받을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ㄹ 복음 환호송

(히브 4, 12)

◎ 알렐루야.

○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,
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네.

ㄹ 복 음

(내일을 걱정하지 마라.)

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(6, 24-34)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

- ²⁴ “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.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
사랑하며,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. 너희는
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.
- 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
먹을까, 무엇을 다실까,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
하지 마라.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,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
않느냐? ²⁶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.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
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,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.
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.
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?
- ²⁷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
늘릴 수 있느냐? ²⁸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? 들에
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. 그것들은 애쓰지도
않고, 길쌈도 하지 않는다.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

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.
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
 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,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?
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! 31 그러므로 너희는 '무엇을 먹을까?',
 '무엇을 마실까?', '무엇을 차려입을까?' 하며 걱정하지 마라.
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.
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
 아신다.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.
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. 34 그러므로 내일을
 걱정하지 마라.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.
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."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●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<신경>

☞ 영성제송 (시편 13(12),6)

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 하리이다.

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 하리이다.

전례

	미사해설	제1독서	제2독서	신자기도
2/27 8시	이 상자	함 봉국	함 경옥	박 미순
11시	양 명상	신 대철	신 춘화	이 인숙
3/ 6 8시	이 상식	김 부균	방 경숙	정대영
11시	최 일환	김 철중	김 미수	최 금연

복 사 : 김현우 & 김현민 이종재 & 안정훈

봉헌자 : 김여철 & 조현구 가족 다음주 : 주봉길 & 우상영 가족

헌금봉사 : 존경하울 어머니 Pr 다음주 : 찬송하울 어머니 Pr

운전봉사 : 김 민환 다음주 : 박 필진

본당 밴 운행시간 : Yonkers 노인 아파트 앞(1,2호차 - 9:00 출발)

Grand Concourse(옛 성당 건너편) - 9:00 출발



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

형제, 자매여러분 사랑합니다(감사미사) : 정바오로[철수] 봉헌

박모니카, 테레사, 안나, 사라, 이반, 비트리스. 로렌, 맥스로빈,
 캐리, 엘리자벳(생미사) : 박다니엘[경룡], 박아네스 봉헌
 윤포카스[경숙](생미사) : 사랑하울 어머니 Pr 봉헌
 신비로운 장미 단원(생미사) : 김유리안나[정임] 봉헌
 윤멜리디나(연미사) : 윤안토니오[광석], 김유리안나[정임] 봉헌
 한복임(연미사) : 한빅토리노[성천] 봉헌
 불쌍한 조상들을 위한(연미사) : 한빅토리노[성천] 봉헌
 박누갈다[경애](연미사) : 박다니엘, 박아네스 봉헌
 부모님(연미사) : 윤토마스[용태] 가족봉헌
 안마리아[교석](연미사) : 윤포카스 봉헌
 서베로니카[옥주](연미사) : 박스테파노가족, 임베로니카 봉헌

성가

입당 : 사랑의 하느님 (성가 25)

봉헌 : 봉 헌 (성가 340)

성체 : 한 말씀만 하소서 (성가 156)

성체성혈 그 신비 (성가 162)

파견 : 내 맘의 천주여 (성가 24)

교회 소식

※ 본당을 활성화 합시다. (제2단계)

(1) 아침, 저녁기도를 가족이 함께합시다.

(2) 주위에 냉담 자를 봉헌합시다.

(3)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합시다.

(남자는 정장, 여자는 미사 보를 쓸 것)

(1) 교구청 기금(Stewardship Appeal 2011)

교구 200주년 기금이 2010년에 끝나고 2011년부터 교구청 기금
 (Stewardship Appeal) 이 시작합니다. 교구청 운영기금으로 1개월분
 교무금을 더 내시면 됩니다.(직접우송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십시오)

(2) 성지가지 수거

지난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잊지 말고 성당에
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

(3) 재의 수요일

3월9일(수) 이 재의 수요일입니다. 저녁 8시30분에 미사가
 있습니다. (단식 과 금욕을 하는 날입니다)

(4) 사순절 피정

3월14일(월)-15일(화) 저녁8시부터 10시까지 부활준비를 위한 사순절 피정(서 보호(레이몬드)신부님) 이 있습니다.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

(5) 본당사목회장단 발표및 이 취임식

회 장 : 문 요셉[민영]

부회장 ; 정 아오스탕[복기], 김 베드로[부균]

총 무 : 노 베드로[경수], 박 요한[증복]

※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정 바오로[철수]회장님과 한 요한[광희]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.

(6) 본당모임

- * 중부 웨체스터 구역회 가 오늘(주일) 저녁 5시30분 친 교실 에서 있습니다.
- * 연령회 모임이 오늘(주일) 11시미사후 센타 202호 에서 있습니다.
- * 서부브롱스 및 맨하탄 구역회 가 3월6일(주일) 11시 미사 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.
- * 대건회 월례회의 가 3월13일(주일) 11시미사후 센타 202호실 에서 있습니다.

혼배 공시



신랑 : 한영진(모)씨의 차남 모창균 군과.

신부 : 조현종씨의 차녀 테글라(윤경)양의

혼배성사가 오늘 3월 6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.

혼배성사 받기에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본당 신부님께 연락해주시시오

- * 이번달(2월)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중부 브롱스 구역 입니다.

우리들의 정성

주일헌금 : \$ 2,200.00 (피정헌금:\$310.00 포함)

감사헌금 : \$ 100.00(익명) 교육헌금 : \$ 3,152.81

교무금 : \$ 3,240.00

2010년 : 황순희(완납) 황옥정(완납) 안창호(완납) 황 숙(완납)

2011년 : 이병찬(1-2) 최인숙(1-6) 정강수(1-2) 안장환(1-3)

정대훈(완납) 한경수(2) 강순연(2) 신대철(2)

이종금(2) 최연월(1-2) 윤기윤(3) 박진혁(2)

박경룡(1-2) 김기창(1-2) 유휴현(1-3) 조부자(1-2)

Stewardship Appeal:\$350.00

누계 : \$750.00

강순연 임석태 박경순 윤기윤 은용경 유휴현

감사하는 마음이 들면...

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. “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”.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한다. “안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더 안아 주라” 라고.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나는 예전에는 그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미우니까, 보기 싫으니까 떡 하나 더 주어서 얼른 보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었다.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해석이 달라 졌다.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미운 사람을 더 사랑하라는 뜻으로.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. 그런데 사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. 우리 신앙인 들은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려면, 즉 미운 사람에게 더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로 의지로 하게되지,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하게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경험한다. 그런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다. 나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남을 쉽게 용서 할 수가 있고, 내가 그 누구로부터 떡 하나 더 받았다고 생각되면 나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진다.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는 나의 이웃에게, 특히 미운 사람에게까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, 기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다. 자신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. 하물며 이런 사람이 어찌 미운 사람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?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인 것 같다.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복 받은 사람으로 판단될 때가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. 근래에 와서 나는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80-90이 된 분들의 처지는 거의가 다 비슷하다. 왜냐하면 모두들 몸은 아프고, 정신도 맑지 못해 스스로, 하고싶은대로 할수있는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. 그래서 80-90이 된 노인들은 몸은 아프고, 마음은 서글프고 그리고 외롭다. 그렇지만,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친절하지 않은 가족, 이웃을 이해하면서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, 어려움을 잘 감수한다.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. 반면 자신의 처지가 불상 하다고 느끼는 분,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은 분노와 짜증 속에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, 아울러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. 이제 한해도 저물어 가는데 그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.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, 기쁜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, 미운 사람에게까지 손길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. 이왕이면 이유를 생각하면서 무슨 의무감 같은 것에 의해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,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? 우 땀은